국 어 [A형]

해설위원 : 박 우 찬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 나머지 셋과 의미가 다른 사자성어는?

① 갑남을녀(甲男乙女)
② 초동급부(樵童汲婦)
③ 장삼이사(張三李四)
④ 부창부수(夫唱婦隨)

<해설> 정답 ④
①②③은 '평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달리 ④ '부창부수(夫唱婦隨)'는 '남편이 먼저 노래하면 아내가 이어 부른다는 뜻으로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를 이르는 말이다.
➔ 夫: 지아비, 唱: 노래하다, 婦: 아내, 隨: 따르다
① 갑남을녀(甲男乙女):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② 초동급부(樵童汲婦): 땔나무를 하는 아이와 물을 긷는 아낙네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
➔ 樵: 땔나무, 童: 아이, 汲: 물 긷다
③ 장삼이사(張三李四): 장씨(張氏)의 셋째 아들과 이씨(李氏)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이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 張: 베풀다, 李: 자두

문 2.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는?

>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회의 주체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도 개개인의 의견을 굽혀 야합하지 않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자.

① 동기상구(同氣相求)
② 화이부동(和而不同)
③ 동성이속(同聲異俗)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해설> 정답 ②
제시문에서는 서로 어우러지면서도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은 ②의 '화이부동(和而不同)'과 가장 가깝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은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함'을 뜻한다.
① 동기상구(同氣相求): 같은 기질의 사람끼리 서로 찾는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히 모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서로 어우러지는 점은 맞지만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과 거리가 멀다. ≒동성상응(同聲相應):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여 울린다.
③ 동성이속(同聲異俗): 사람이 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라면서 그 나라의 풍속으로 인해 서로 달라짐을 이르는 말.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적대시하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으나 풍랑을 만나서 서로 단합하여야 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문 3. ㉠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리포트 자료를 종류별로 (㉠)해 두어라.
> ○ 재활용할 쓰레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
> ○ 그는 언제나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할 줄 안다.

	㉠	㉡	㉢
①	分類	分離	區分
②	分類	區分	分離
③	分離	區分	分類
④	分離	分類	區分

<해설> 정답 ①
㉠ 分類(분류): 종류에 따라서 가름. 리포트 자료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가는 것이므로 '분류'가 맞다. ➔ 類: 무리
㉡ 分離(분리):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서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분리'가 맞다. ➔ 離: 떼놓다
㉢ 區分(구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옳고 그른 일을 나누는 것이므로 '구분'이 맞다. ➔ 區: 구역

문 4.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숫저울까?
 − 숫접다:순박하고 진실하다.
② 그녀는 그가 떠날까 저어하였다.
 − 저어하다: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③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 곰살궂다:일이나 행동이 적당하다.
④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새살거렸다.
 − 새살거리다:샐샐 웃으면서 재미있게 자꾸 지껄이다.

<해설> 정답 ③
'곰살궂다'는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꼼꼼하고 자세하다.'를 뜻한다.

문 5. 다음과 같은 뜻의 속담은?

>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말한다.

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② 언 발에 오줌 누기
③ 여름 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
④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설> 정답 ②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과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임시변통(臨時變通)'은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맞추어 처리함을 뜻한다.
①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ⅰ) 당장에 쓸데없거나 대단치 않게 생각되던 것도 막상 없어진 뒤에는 아쉽게 생각된다는 말. ≒오뉴월 곁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섭섭하다]
ⅱ) 오랫동안 해 오던 일을 그만두기는 퍽 어렵다는 말.
④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힘이나 밑천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6.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① 나는 그 일을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② 그에게는 다섯 살배기 딸이 있다.
③ 밖에 있던 그가 금세 뛰어왔다.
④ 건물이 부숴진 지 오래되었다.

<해설> 정답 ④
④ × '부서지다'의 관형사형인 '부서진'이 맞다.
'부수다'는 '부수어(부숴)/부수었다(부쉈다)'로 활용한다. 그러나 그 피동 표현인 '부수어지다(부숴지다)/부수어진(부숴진)'은 '부서지다/부서진'의 잘못된 표현이다. '부서지다'가 '부수다'에 대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붓어디다)로 중세 국어 시기에 이미 존재했고 지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부수어지었다(부숴졌다)'가 아닌 '부서지었다(부서졌다)'가 맞는 말이고, '부수어(부숴)뜨리다/부수어(부숴)트리다'가 아닌 '부서뜨리다/부서트리다'가 맞는 말이다.
- 부수다: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 부서지다: 단단한 물체가 깨어져 여러 조각이 나다.
- '부수었다(부쉈다)'를 '부셨다'로 축약해서는 안 된다.

① '시답다'는 '실(實)-답다'에서 유래한 말로 (('시답지 않다', '시답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다.'를 뜻한다. '시답지'는 맞는 표기다.
② '-배기[배기]'는 ((어린아이의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어근)에 붙여 쓴다.
③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지금 바로'를 뜻하는 부사이다. '금새'는 '물건의 값. 또는 물건 값의 비싸고 싼 정도'를 뜻하는 명사이다.

문 7. 묶음표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① 나는 3·1 운동(1919) 당시 중학생이었다.
② 그녀의 나이(年歲)가 60세일 때 그 일이 터졌다.
③ 젊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④ 국가의 성립 요소 [국토 / 국민 / 주권]

<해설> 정답 ②
② × 고유어 '나이'에 대응하는 한자어 '年歲(연세)'를 함께 보일 때 쓰는 묶음표는 대괄호이다. ➔ 나이[年歲]
① 소괄호는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③ 대괄호는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④ 중괄호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문 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몽타주는 두 개 이상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에이젠슈테인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 그는 두 개의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하여 시각적으로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려 했다. 가령 사람의 '눈'과 '물'의 이미지를 충돌시켜 '슬픔'의 의미를 드러내며, '문' 그림 옆에 '귀' 그림을 놓아 '도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식이다. 의미에 있어서 단일하고, 내용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묘사적인 장면을 연결시켜 지적인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가 구현하려 했던 몽타주의 개념이다.

① 몽타주는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다.
② 몽타주는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하여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한다.
③ '눈'과 '물'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 배치되어 '슬픔'이 표현된다.
④ '문'과 '귀'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도청'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해설> 정답 ①
① × 에이젠슈테인은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바탕으로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했다. 몽타주는 상형 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 아니다. ➔ "에이젠슈테인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
② "그는 두 개의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하여 시각적으로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려 했다."
③④ "가령 사람의 '눈'과 '물'의 이미지를 충돌시켜 '슬픔'의 의미를 드러내었으며, '문' 그림 옆에 '귀' 그림을 놓아 '도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식이다."

문 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동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상품의 일부라는 점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일반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이전이 가능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재화 그 자체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수요·공급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상품은 공급자 자신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되고, 수요·공급에 있어서 봉급, 부가 급여, 직업의 사회적 명예, 근무 환경, 직장의 평판 등 가격 이외의 비경제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 시장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공급이 유연성 있게 변화하지 않는 동시에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가격의 조절 기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① 여러 이론을 토대로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② 여러 사례를 근거로 삼아 노동 시장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③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 시장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④ 노동 시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분석하여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③
위 글은 노동 시장의 특징을 주로 생산물 시장의 특징과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대비는 두 내용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설명 방식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글의 첫 문장 '노동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에 이미 나타난다. 또한 셋째 문장에서 '생산물 시장'을 언급하고 나서, '그러나'라는 접속어로 시작하는 넷째 문장에서 '노동 시장'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장은 혼자서 빙긋 웃었다. 감독조를 짐짓 3공사장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인부들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수걱수걱 들어주고 나면 길 잘못 들인 강아지 새끼처럼 또 무엇을 달라고 보챌지 몰라 불안할수록, 더욱 감독조는 필요했다.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보냈다가 인부들과는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 현재 노임도 올렸고 시간 노동제도 실시하고 있는 척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내일의 행사를 위해 숨 좀 돌려보자는 게 그의 속셈이었다. 그 다음엔 주동자들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때를 보인 후, 여비나 두둑이 주어 구슬리며 딴 지방으로 쫓아 보낼 작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쟁의에 참가했던 인부들의 명단이 저절로 들어와 있는 셈이었다. 그들 불평분자의 절반쯤은 3공사장 인부들과 교대시키고, 나머지는 남겨 두되 각 함바에 뿔뿔이 흩어지게 배당할 거였다. 점차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둘씩 해고해 나갈 것이었다. 차츰차츰 작업량을 늘리고 작업장을 줄여 가면 남는 인부가 많게 될 테니 열흘도 못 가서 감원할 구실이 생길 거였다. 따라서 인상되었던 노임을 차츰 낮추며 도급을 계속시키면서 인부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과 같이 나가면 어항에 물 갈아 넣는 것처럼 인부들은 모두 새 사람으로 바뀔 것이었다. 소장은 이 모든 일들을 열흘 안으로 해치우고 원상 복구를 해 놓을 자신이 있었다.

－황석영, 객지 중에서－

① 소장은 내일의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려고 한다.
② 소장은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③ 소장은 쟁의의 주동자들을 해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
④ 소장은 감독조를 해체하여 상황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해설> 정답 ④
④ × 소설의 전반부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 … 더욱 감독조는 필요했다.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보냈다가 인부들과는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 ➔ 소장이 실제로는 감독조를 해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① "우선 내일의 행사를 위해 숨 좀 돌려보자는 게 그의 속셈이었다."
② "소장은 이 모든 일들을 열흘 안으로 해치우고 원상 복구를 해 놓을 자신이 있었다." ➔ 여기서 "원상 복구"는 주동자를 해고하고, 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③ "주동자들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때를 보인 후, 여비나 두둑이 주어 구슬리며 딴 지방으로 쫓아 보낼 작정이었다."
- 「객지(客地)」
1970년대 서해안 간척지 공사 현장을 배경으로 떠돌이 노동자들의 비인간적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저항 의지를 그린 노동 소설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문 11.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① 그는 허구헌 날 술만 마신다.
② 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동네 어른들과 잔치라도 벌여야겠구나.
③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④ 담당자의 서투른 일 처리 때문에 창구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해설> ①
① × '허구(許久)하다'의 활용형(관형사형)은 '허구한'이다. '허구하다'는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다.
② '벌이다'의 활용형(당위)인 "벌여야겠구나"는 '벌이-어야 하겠구나'의 준말이다.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를 뜻하는 동사이다.
③ '서슴다'의 활용형(부정)인 "서슴지"는 맞는 표기이다. '서슴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를 뜻하는 동사이다. '서슴하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서슴하지'의 준말 '서슴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서투르다'의 활용형(관형사형)인 "서투른"은 맞는 표기이다. '서투르다'는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루기에 설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다. '서투르다'의 준말인 '서툴다'는 '서툰'으로 활용한다.

문 12.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②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는 함께 살기 어렵다.
③ 새해에는 으레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④ 몸이 아픈 사람은 교실에 남아 있었다.

<해설> 정답 ①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活用)한다는 형태상의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다. 첫째, 동사는 움직임의 과정적 표현이므로 현재형 어미 '-는/ㄴ다', 진행형 '-고 있다'로 끝날 수 있으나 형용사는 그렇지 못하다. 둘째, 동사는 주로 동작 주체의 의지가 개입되므로 명령형 어미 '-아/어라', 청유형 어미 '-자'로 끝날 수 있으나 형용사는 그렇지 못하다. 셋째, 동사는 현재 관형사형 어미로 '-는/ㄴ'을 취하나 형용사는 '-은/ㄴ'을 취한다.
① '굳다'는 현재 관형사형 어미로 '-는'을 취하고, 현재형(굳는다)과 진행형(굳고 있다)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이다.
②③④ 기본형 '다르다', '새롭다', '아프다'는 현재 관형사형 어미로 '-은'을 취하고, 현재형과 진행형, 명령형과 청유형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형용사이다.
• 다른: 여기서는 형용사 '다르다'(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관형사형이다. 관형사 '다른'은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를 뜻한다.
• 새롭다: 어간 받침 'ㅂ'이 모음 어미를 만나면 [오/우]로 발음되는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새롭다'의 현재 관형사형은 '새롭-은 → 새로운'이 된다.

문 13. 다음 중 고친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그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② 그는 천재로 불려졌다.
→ 그는 천재로 불렸다.
③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그는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④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해설> 정답 ③
③ × '마음씨 좋은'이 '할머니'를 수식하는지 '손자'를 수식하는지 불확실한 중의적 표현이다. 주격 조사 '이/가'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조사를 붙였다고 해서 옳은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쉼표를 이용하거나 문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
① 접속 조사 '과'에 의해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는 창작 활동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전시회를 열었다.' 여기서 '창작 활동을 열었다'는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표현이다. 목적어 '창작 활동'에 호응하는 서술어 '하고'를 넣었으므로 바르게 고친 문장이 된다.
② '불려졌다'(불리어지었다)는 피동사 '불리다'에 다시 피동 표현 '-어지다'가 붙었기 때문에 이중 피동 표현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지'를 빼면 바른 문장이 된다.
④ 어떤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에게'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 '에'는 무정 명사(식물, 무생물)에 쓰이고, '에게'는 유정 명사(사람, 동물)에 쓰인다. '나무'는 식물이므로 조사 '에'가 붙어야 한다.

문 14. 밑줄 친 부분을 고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사업자는 절전형 기기 보급 제도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① 사업자는 → 사업자의 ② 에너지를 → 에너지의
③ 줄임으로써 → 줄임으로서 ④ 발전과 → 발전보다

<해설> 정답 ②
② 목적어 "에너지를"은 이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이다. "에너지를"을 서술부 "이용을 증진하여"에 맞게 고치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가 된다. 여기서 관형격 조사 '의'는 실질적으로 목적격 조사 '를'의 기능을 한다.
① "사업자는"이 맞는 표현이다. 위 문장의 전체 주어가 "사업자는"이고, 전체 서술어가 "동의한다"이기 때문이다.
③ "줄임으로써"가 맞는 표현이다. "줄임으로써"는 '줄이다'의 명사형 '줄임'에 조사 '(으)로써'가 붙은 형태이다. 용언의 명사형에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써'가 붙으면 '~하는 것을 통하여'라는 뜻을 나타낸다. 여기서 "줄임으로써"는 '줄이는 것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지닌다.
④ "발전과"가 맞는 표현이다.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문장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라는 문장이 접속 조사 '과'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었다.

문 15. 다음 중 올바른 우리말 표현은?

① (초청장 문안에서) 귀하를 이번 행사에 꼭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 통화에서)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③ (직원이 고객에게) 주문하신 상품은 현재 품절이십니다.
④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나라가 이번에 우승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택입니다.

<해설> 정답 ②
② 전화 예절에서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라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① '귀하(貴下)'는 듣는 이를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이다. 권유하는 상대가 이인칭 단수를 가리키는 '귀하'인 반면, '많이'는 복수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상 호응이 되지 않는다.
➔ 귀하를 이번 행사에 모시고자 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빈 여러분을 이번 행사에 꼭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이다. 주체의 소유물 혹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처럼 '-시-'를 남용하는 것은 바른 경어법이 아니다. '품절이십니다.'에서 '품절'은 청자의 소유물 혹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품절입니다.'가 바른 표현이다. 고객을 존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불필요한 '-시-'를 넣은 경우이다.
④ 나라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로 써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나라'로 써야 한다. 그러나 윗사람이나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가게', '저희 학교', '저희 회사' 등과 같이 '우리' 대신 '저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16.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이다. 돌이 단단하고 물이 부드럽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 체계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감각이 주관적이어서 사람과 시기에 따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철학자들은 감각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존 로크와 같은 경험론자들은 감각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② 마음을 다하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고,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천명을 알게 될 것이다.
③ 종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④ 세계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유 의식의 진보이다.

<해설> 정답 ③
제시문은 경험론자들의 지식 획득 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경험론자들은 주관적 감각을 통해 구체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이와 가장 가까운 방법론은 ③에 나온다. 종 치는 것을 '보아야'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감각(시각)을 통해 지식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①②④에서는 구체적 감각에서 출발하지 않고 일정한 관념에서 시작하여 지식을 도출하는 방법이 언급되고 있다.
① 의심할 수 없는 가장 일반적인 진술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사실에 그 일반적 진술을 적용하고 있다.
② 마음이라는 관념적인 현상을 기초로 해서 그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미루어 나가는 유추의 방법을 쓰고 있다.
④ 역사로 인해 자유 의식이 진보한 것이 아니라 자유 의식의 진보로 인해 역사가 전개된다고 본다. 제시문과 반대 방향의 사고 전개 과정을 보이고 있다.

문 17.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양반이라는 말은 선비 족속의 존칭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어질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그 집에 몸소 나아가서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해마다 관가에서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그 빚이 쌓여서 천 석에 이르렀다. 관찰사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의 환곡 출납을 검열하고는 매우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내었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하였다.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몰아 세우기를,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양반 하더니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라고 하였다.
>
> －박지원, 양반전 중에서－

① 양반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② 군수는 양반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다.
③ 관찰사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④ 아내는 남편에 대해 외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해설> 정답 ④
④ × 마지막 부분에서 아내가 남편을 몰아세우며 "양반 양반 하더니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아내의 입을 빌려 '양반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① '그 양반은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양반은 스스로를 구할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② 군수가 마음속으로 양반을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에서 군수가 양반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다.
③ 관찰사는 양반이라고 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양반을 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같은 양반 신분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 공평무사한 태도를 보인다.
• 「양반전(兩班傳)」
양반 신분을 팔고 사는 사건을 통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허례의식에 가득 찬 양반 계층을 풍자하는 한문 소설이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삐 물에 들라."
>
> 심청이 거동 보소. 두 손을 합장하고 일어나서 하느님 전에 비는 말이,
>
>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섧지 아니하되, 병든 아비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 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明天)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
>
> 눈물지며 하는 말이,
>
> "여러 선인네 평안히 가옵시고, 억십만금 이문 남겨 이 물가를 지나거든 나의 혼백 불러내어 물밥이나 주시오." 하며 안색을 변치 않고 뱃전에 나서 보니 티 없이 푸른 물은 월러렁 괄넝 뒤둥구리 굽이쳐서 물거품 북적찌데한데, 심청이 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뱃전을 다시 잡고 기절하여 엎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
> － 심청가 중에서－

①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②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상황을 보여준다.
③ 죽음을 초월한 심청의 면모와 효심이 드러나 있다.
④ 대상을 나열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④
④ ×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들기 전의 장면이다. 대상을 나열해서 다양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판소리 사설의 한 특징이다. 그러나 위 제시문에서는 대상 나열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장면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도 아니다.
①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 "심청이 거동 보소.", "기절하여 엎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②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전개상황을 보여준다.
③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秋毫)라도 섧지 아니하되, … 명천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에서 심청의 효성을 알 수 있다.
• 「심청가」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을 주제로 하는 판소리 사설이다. '거타지 설화', '인신 공희 설화', '맹인 득안 설화', '효녀 지은 설화' 등의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판소리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자 이후 판소리 사설이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해학미와 풍자가 주를 이루는 다른 사설과 달리 비장미와 해학미가 공존하는 특징을 지닌다.

문 19. 다음 글의 내용과 시적 상황이 가장 유사한 것은?

> 이때는 추구월망간(秋九月望間)이라. 월색이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고, 공중에 외기러기 응응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사이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를 저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에 밝은 달 허리에 가득 하고 쓸쓸한 낙엽송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해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
>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임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임을 어찌 보지 못하는고. 심양강의 탄금녀는 만고문장 백낙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설진심중무한사(說盡心中無限事)를 세세히 하였건마는,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하지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
>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흠씬 갈고 청황모 무심필을 듬뿍 풀어 백능화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탄식하면서 맥맥이 앉았다가, 고개를 돌려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
> － 채봉감별곡 중에서－

①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갔네 /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 이제 임이여 어이할꼬.
② 가위로 싹둑싹둑 옷 마르노라 / 추운 밤 열 손가락 모두 굳었네 / 남 위해 시집갈 옷 항상 짓건만 / 해마다 이내 몸은 홀로 잔다네.
③ 펄펄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울사 이내 몸은 /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④ 비 개인 긴 언덕에 풀빛 짙은데 / 님 보내는 남포에는 서러운 노래 퍼지네 /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까 /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하니.

<해설> 정답 ③

제시문에서 송이는 달을 보며 '작년 이때 우리 임을 만났더니, (지금은) 임을 어찌 보지 못하는고.'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을 통해 송이가 임과 이별하고 나서 임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에서 시적 화자는 이별 후의 쓸쓸한 마음을 정다운 암수 꾀꼬리에 대비해서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과 ③은 이별 후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③은 「황조가(黃鳥歌)」이다.

① 떠나려는 임이 물에 빠져 죽자 이를 한탄하고 체념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죽어서 이별했다는 점이 제시문과 다르다.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② 추운 겨울 고된 일을 하며 홀로 쓸쓸히 지내는 여인의 마음이 나타난다. 허난설헌, 「빈녀음(貧女吟)」
④ 대동강에서 임과 이별하는 시적 화자의 쓸쓸한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이나 ③과 달리 시적 화자는 현재 임과 이별을 하는 상황에 있다. 정지상, 「송인(送人)」

-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남녀 간의 애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자미상의 조선 후기 한글소설이다. 채봉(송이)이라는 여성이 출세에 눈이 먼 아버지로 인해 온갖 고초를 겪지만 끝내 자신이 사랑하는 가난한 선비 장필성과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의 명령과 권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성취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여성관과 봉건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을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사랑하는 임을 여읜 슬픔과 체념을 보여 주는 고대 서정 가요이다.
- 「빈녀음(貧女吟)」
  조선 전기 여류 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이 지은 한시(漢詩, 전체 4수) 중 두 번째 작품이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가난한 여인의 고달프고 외로운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 「황조가(黃鳥歌)」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고 전하는 한역시(漢譯詩)이다.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슬픔과 이별로 인한 외로움을 '꾀꼬리'를 매개로 하여 우의적(寓意的)으로 표현하였다.
- 「송인(送人)」
  고려 문인 정지상이 지은 7언 절구 한시이다. 대동강 주변의 풀과 이별의 슬픔을 대비하고, 대동강 강물과 이별로 인한 눈물을 견주면서 현재 임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문 20.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21세기 인류의 운명은 과학 기술 체계에 부여된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기술 공학에 의해 새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박하고 성급한 희망과, 기술이 인간을 대신해서 역사의 주체로 등극하리라는 허무주의적인 전망이 서로 엇갈리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러나 모든 생산 체제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기업 문화의 전환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자기 보존, 생산의 효율성, 이윤의 극대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엇보다 기업 내부의 문화적 전환을 떠나서 환경이나 자원, 에너지 등의 범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질수록 사람들은 기술 공학의 마술적 힘에 매달리고, 그러한 위기들을 중앙 집중적 권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기술 사회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다) 기술적 질서는 자연은 물론 인간들의 삶의 방식에도 심층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관리 사회로의 이행이나 노동 과정의 자동화 등은 사회 공학적 기술이 정치 부문과 생산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물론 기술 사회가 반드시 획일화된 관리 사회나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로만 대표되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산업이나 초전도체 산업 등 고도 기술 사회의 일부 산업 분야는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지니는 유연한 체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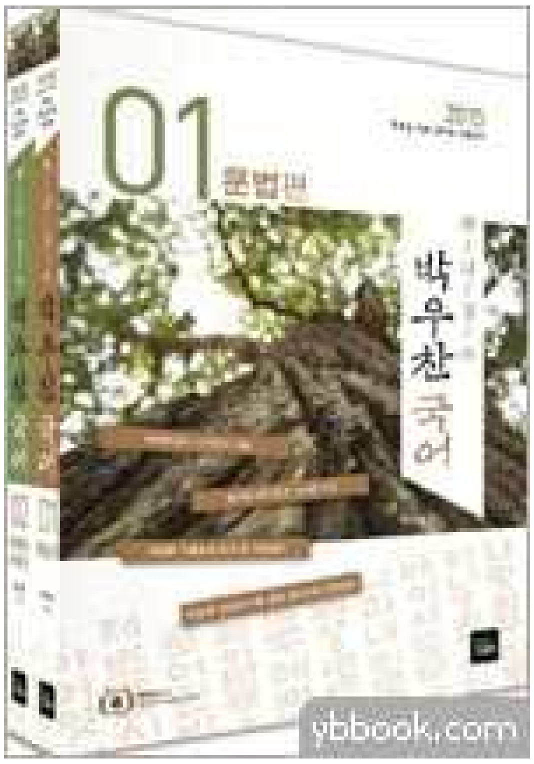
(라) 생활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고 경제적 행위의 목적으로 자리 잡은 기술은 더 이상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 주는 생산 수단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기술의 체계는 이제 여러 연관된 기술들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서 구성된 유기적인 앙상블로 기능하는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의 질서와 역동성을 지니는 체계이며 유사 주체로서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가)－(다)－(나)－(라)
④ (가)－(라)－(다)－(나)

<해설> 정답 ③

단락 간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유의해서 읽어 보면 중복되는 어구들이 나온다. 이 어구를 연결 고리로 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접속 어구를 중심으로 해서 단락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다. 먼저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화제가 제시된다. '기술 질서'라는 핵심 어구는 (다)의 처음에 반복되고 있다. 또한 (다)의 뒷부분 '일부 산업 분야는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하는 유연한 체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라는 내용은 접속어 '그러나'를 사이에 두고 (나)의 앞부분 '모든 생산 체제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 (가) → (다) → (나)의 순서를 찾으면 답은 ③임을 알 수 있다.

- 글의 흐름
  (가)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 ➔ (다) 기술 질서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영향력 ➔ (나) '그러나' 기술 질서의 본질: 중앙 집중적 기술 질서 ➔ (라) 기술 체계의 사회적 의미 강조

＊ 15년 지방직 9급 출제경향 분석

문법 이론	어문 규범	문학	독해와 작문	어휘
2문제	5문제	4문제	4문제	5문제
형태론2	맞춤법2, 문장규범2, 언어예절1	고전산문2, 고전문학 복합1, 현대소설1	내용확인1, 추론1, 전개방식1, 전개순서1	고유어1, 속담1, 한자1, 한자성어2